

쇼! 문화전당 '광주의 미래' 열리다

오늘 역사적 개관...초청인사 투어
옛 도청부지에 첫 삽 10년만에
연말까지 개관 축제·공연·전시
정식 개관행사는 11~12월 초

'문화수도' 광주의 문화발전소가 될 국
립아시아문화전당이 4일 개관한다. 지난
2005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부지에서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이다.

〈관련기사 2·3·16면〉

문화전당의 개관은 광주를 21세기 아시
아 문화를 선도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
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에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
성하는 거점이자 아시아 교류의 장이 되는
것은 물론, 문화전당에서 만들어진 창작
물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화전당측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핵심시설
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4일 문을 연다"
고 밝혔다. 문화전당측은 이날 문화전당
을 구성하는 5개원 가운데 새로 지은 4개
원(문화창조원·예술극장·문화정보원·어
린이문화원)의 문을 열고 개관콘서트(전
시·공연, 운영프로그램)를 선보인다.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민주평화교류원
은 11월경 일부 개방될 예정이다.

문화전당은 개관식이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별도 공식
행사를 마련하지 않고 김동호 문화융성위
원장, 김봉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등
초청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전당 투어를
실시한다. 다문화 가족, 소외계층, 외
국인 유학생 등 300명도 투어에 초청됐
다.

문화창조와 제작, 유통을 지향하는 문
화전당은 연면적(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넓이·16만1237㎡)으로 따져 국내 최
대인 국립중앙박물관(13만7290㎡) 보다
넓다. 전당 건립에는 토지보상비와 건립비
를 통틀어 6991억원이 들었다.

문화전당은 5개원이 상호 보완·협력 시
스템으로 틀어치며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
계돼 있다는 게 특징이다. 예술극장은 아
시아 동시대 예술(Contemporary Art)을



아시아 문화의 심장

대한민국 문화융성을 대표하는 아이콘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10년의 건립공정을 끝마치고 오늘 개관한다. 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체(드론)를 이
용해 광주의 도심풍경을 바꾼 문화전당의 모습을 담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창작해 선보이는 공연장, 그리고 아시아
문화정보원은 아시아 각국 문화자원을 수
집하고 연구하는 공간을 지향한다. 어
린이문화원은 아시아문화를 기반으로 한 복
합어린이 문화체험장이다. 문화창조원은
국내외 문화전문가, 공학자들이 융합·협
업으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기능을 담
당한다.

문화전당은 연말까지 개관 축제와 공
연·전시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예술극장
은 개막 축제작품으로 모두 33편을 무대
에 올리며, 문화창조원은 아시아를 조망
하는 '신화와 근대 비켜서다', 어린이문화
원은 '어린이 공연문화축제' 등으로 국내
외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문화전당측은 문화전당 5개원의 콘텐
츠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충·보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
전당은 정부 책임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이 맡게되며, 일부 업무는 이당 중 출
발예정인 아시아문화원이 위탁 운영하는
2개 기관체제로 운영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朴, 텐안면 성루 올라 中 열병식 참석

60년 전 北 김일성이 선 자리

동북아 역동적 역할관계 상징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전 텐안면(天安門) 광장에서 진행되는
중국의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
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
사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習近平) 국가주석과 각국 정상급 외교사
절들과 함께 텐안면 성루에 올라 오전 10
시(현지시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
는 전승절 기념대회를 참관했다. 우리 정
상이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열병식)에 참
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5면

박 대통령이 오른 텐안면 성루는 1954
년 10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마오쩌둥
(毛澤東) 국가주석과 함께 중국 건국 5주
년 기념 열병식을 참관했던 장소였다. 61
년 전 김일성과 마오쩌둥 주석은 한국전쟁
휴전 직후 '항미원조(抗美援朝)'의 혈맹국
임을 과시했지만,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10년 인연의 '라오팡어우(老朋友·오랜 친
구)'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중국의 혈맹으로 불리는
북한의 지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
통령이 텐안면 성루에 오른 것은 한중관계의
질적 도약 및 변화된 북중관계, 더 나아가
동북아의 역동적인 역할 관계를 상징적으
로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이라는 평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텐안면 광장을 바

라보는 방향으로 시 주석의 오른편 두번째
자리에 착석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퍼레이드를 지켜봤다. 중국의 전통적 혈
맹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다
음이었다.
이와 함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내외는
시 주석 오른편으로 다섯번째, 여섯번째
자리에 각각 위치했다. 반면 북한측 대표
로 참석한 최룡해 당비서는 텐안면 성루
앞열의 오른쪽 끝편에 자리해 달린 북
중관계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4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대
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과 동공간
담회, 한중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당
일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coupang

쿠팡, 광주에 600억원 투자

진곡산단에 호남 물류센터

이커머스(E-commerce) 1위 업체
인 '쿠팡'(대표 김범석)이 광주에 600
억원을 투자해 호남권 물류기지 거점
을 만든다.

광주시는 쿠팡과 4일 시청 비즈니
스룸에서 진곡산단에 물류기지 설립
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운
정현 시장과 쿠팡의 헨리 로우(Henry
Low) 수석부사장, 김철권 부사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쿠팡은 진곡산단
5만3531㎡ 부지에 60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호남권 거점 물류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광주 물류기지가 준
공되면 물류 집품과 포장, 검수 및 배
송에 필요한 인력 1000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나타나게 돼 지역 고용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커머스 기업 쿠팡은 최근 총 14억
달러(한화 1조5500억원)에 달하는 해
외자본을 유치하며 전자상거래 모바
일 앱 이용자 수 3년간 1위, 모바일 앱
내려받기(다운로드) 2500만건을 넘어
서며 국내 이커머스 대표 기업으로 성
장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쿠팡'에 투자 제
안서를 제출하고 실무진과 지속적으로
투자협의를 진행해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도 페지 '밥그릇 싸움' ▶6면



올 휴가는 대한민국으로
경기도 DMZ 안보여행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수시모집 | 062)605-1114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예능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5년 9월호

8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나의 잊을 수 없는 귀향
"추석은 유년의 그리움으로 달려온다"
"추석은 만나라고 있는 거야"

광복70년 특집

민족의 노래
아리랑

'아리랑' 그 말은 어디서 왔을까, 어원백설
'몽클한 감동' 날로 새로워지는 아리랑 무대들
4회 광주아리랑대축제 9월 개막

추석 기획
노중훈의 세계 문화도시 기행
헤밍웨이와 게바라로
기억되는 도시,
쿠바 아바나

도시재생, 문화에게 물어봐
국내외 현장을 가다중
역사와 추억으로
사랑받는 쇼핑단지,
보스턴 퀸시마켓

스타 데이트
"연기 힘들지만 새로운 나 발견"
"오 나의 귀신남서 음탕녀 연기 박보영"

예향 초대석

민중미술 1세대 작가 임옥상
"광주는 내 예술의 고향"

남도의 장인들
정성과 솜씨로 차리는
희로애락의 깊은 맛
남도의례음식장 이애섭

문화 화제
고흥군 '송수권 시문학상' 제정 계기
송수권 시인과 나는 문학 이야기

공인 화제
최창익의 예술혼 있는 국악인 등용론,
23회 임방울국악제

문화 화제
황혼의 뜨거운 국악 열정,
'전남실버국악
예술단' 창단

우리동네를 소개합니다
문화행기 가득한 각동동 사회문화마을

장성
오늘에 있는 드넓은 선비정신
황룡기운 가득 '열두우치터'